

서는 땅, 그리고 피는 꽃

전북도립미술관 기획전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으로 구성
3가지 주제를 섹션별로 엮어내
전시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980~2000년대의 한국미술은 단선적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인해 색채 회복, 서사성 부활, 사회적 발언, 포스트모던 등이 대두되며 탈형식·탈논리·탈경계로 접철된 시대였다.

그 당시, 전북미술은 한국미술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독자적인 미감을 구현했다. 후기인상주의적 구성계열, 서정성 짙은 반(半)구상계열, 실험성을 모색하는 추상계열, 참여미술 등을 다양하게 탐색했다.

또한 전문 미술교육을 받은 미술가들의 본격적인 창작 활동으로 전북화단의 구조 자체에 변혁이 일기도 했다. 작가들은 고답적인 미술에 저항하고, 도전하며 다른 지역과 교류 및 연대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1980~2000년대 전북미술의 변혁이 거세게 일었던 현장을 '서는 땅, 피는 꽃'에 담아낸다.

17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미술관 2·4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서양화가 및 조각가 등 26명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구성됐다.

3개의 주제를 섹션별로 엮어 낸 전시는 작품의 특질에 따라 구분했다. 먼저 Section 1, '어둠을 빠져'

다' (2실)는 고답적인 미술에 저항하면서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주목한다. 실험성을 모색한 추상·설치·개념미술 등 현대적 범주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꾸렸다.

김귀복, 김수자, 김영규, 김운진, 김한창, 선기현, 심홍재, 이승우, 임병준, 정현도, 최 원 등의 작품관을 엿볼 수 있다.

Section 2, '감상에 몰들다' (3실)는 후기인상주의적 구성계열, 서정성 짙은 반(半)구상계열 등 구상과 추상을 접목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모색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국승선, 김부건, 박민평, 성태식, 조래장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Section 3, '선 땅에서 핀 꽃' (4실)은 선명한 개성과 다양함으로 개인적인 번민과 고뇌를 담은 형상과 신표현주의적인 자유로운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엮었다. 김두해, 도병락, 박종수, 유종국, 이강원, 이한우, 임택준, 전철수, 채우승, 홍선기 작가의 작품세계로 인도한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북미술에 대해 "소박하지만 가난해 보이지 않고, 탁월한 미감과 품격이 있다"며 "여나 지금이나 층이 두텁지는 않지만 탁월함을 보였고, 현재도 선명한 개성과 다양함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시를 통해 한 시대를 품미한 전북미술가의 내밀한 열정과 도전, 예술적 저항감과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전북미술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미술협회 강신동 지회장은 "전북미술을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전시"라며 "전북미술의 궤적을 통찰한 구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채우승 '깊은 잠'



박민평 '산 이야기'



박종수 '땅-사람들'



선기현 '애! 금수강산'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초아의 봉사대상 수상

해마다 따뜻한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와 '기능올림픽 전라북도 동우회'가 제14회 초아의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김홍균)와 JT전주방송(대표이사 사장 김택곤)은 해마다 사회봉사와 교육, 공공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여 초아의 봉사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민센터에 성금을 맡겼으며 지금까지 기탁한 성금이 5억5천8백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얼굴 없는 천사를 기리기 위해 천사 쉼터와 천사벽화를 조성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14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기능올림픽 전라북도 동우회'는 30년 동안 농촌 지역을 찾아가 집수리, 농기계 수리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후배 기능자 배출을 위해 기능 전수 와 진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부문은 군산 자원봉사센터의 김봉림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봉림 씨는 군산 자원봉사센터에서 5천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벌였고 '희망퇴움'이라는 봉사단체를 결성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은 21일 우석대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얼굴 없는 천사여

전주한지문화축제, 내달 5일 개막

7일까지 전통문화전당 일원서

제22회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전통문화 자산인 '한지'의 산업적 연계를 통한 가치 창출에 나선다.

내달 5~7일 열리는 축제는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는 주제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공예품전시관 문화마당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개·폐막식과 2018전주한지패션대전·한지패션갤러쇼 등 공식행사를 비롯한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지산업박람회와 한지상품전시관 및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집담회, 그리고 전시·체험·이벤트로 진행된다.

개막퍼포먼스 '전통한지의 길을 잇다'는 중앙에서 유럽까지 전파된 전통 종이길 잇기, 전주-원주의 전통한지 제작소 잇기, 세계지도와 전북도를 연결하는 한지 로드길 잇기 등으로 구성해 한지 실크로드를 구현한다.

한지 상품 및 한지 산업의 경향을 살필 수 있는 한지산업관은 도내 8개 전통한지업체와 수요자 간에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간운영에 집중한다. 전통한지관과 한지공예관 공간을 한국전통문화전당 마당과 공예품전시관 문화마당에 각각 배치하고, 수요층을 달랠 한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 한지 장인의 전승·보존·계승 활동을 담아낸 '한지, 명인·명품 특별전'과 한지의 원료인 다나무의 곁집을 벗기고, 두드리고, 한지 뜨기 체험을 통해 한지의 생생원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축제는 어린이날과 관련한 이벤트를 준비, 가족 단위 관람객을 맞는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함께 하는 한지비행기 접기 및 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한지 꽃에 소망을 실어 꽃밭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장수군,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선정... 예산 6000만원 확보

장수군은 올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 공간 재창조사업 '예술로 문화터'와 '문화관광 대표축제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000만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공간 재창조사업' 예술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문화 활동·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예술적 가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쳤으며 장수군이 최종대상

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의암공원 일원에 군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벽화, 트리 아트 등 공간의 재창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도 지자체 대표축제 기간 동안 예술·체험 등에 총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특성화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장수군을 포함한 전북도 4개 축제가 최종 선정되어 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관 축제'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기억을 담그다 전북연극제 최우수

극단 동지(대표 문광수)의 '기억을 담그다'가 제34회 전북연극제 최우수작품상(전라북도지사상)에 선정됐다.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연극제 폐막식에서 우수작품상(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는 극단 작은소리와 동자(대표 이도현)의 '할머니의 레시피'에, 장

려상(연극협회장)은 극단 까치동(대표 전춘근)의 '흐르는 물과 같이'에 돌아갔다.

씨간장을 둘러싸고 한바탕 벌어지는 소란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곱씹는 작품을 선보인 극단 동지는 6월15일 대전에서 개막하는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